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인터넷회원 평균 최고 3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www.hpdmastery.co.kr 061320-7700, 7714

“北도 참가하는 날 빨리 왔으면”

盧대통령 개회식 축사...“광주발전위해 끝까지 최선”

어제 화려한 개막식...3만여명 선수들 열전 7일 돌입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빛과 문화의 고장’ 광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8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박광태 광주시장, 각 시도지사 및 16개 시·도 선수·임원이 참석했으며 3만여명의 관중들이 운집, 대회 열기를 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 축사에서 “앞으로 남북간의 스포츠 교류가 더욱 활성화 돼 북·남 동포 선수단도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남북이 함께 경의선 열차를 타고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러 갈 것이다. 정부도 선수 여러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모두 열심히 해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하나하나 열리고 있다”고 말한 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향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광주·전남 혁신도시도 다음 달에 기공한다. 서남권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또한 광주의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것”이라며 “광주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문화와 예술이 꽃피고 민중과 인권, 평화의 도시인 광주가 월드컵 4강 신화에 빛나는 월드컵경기장에서 민족의 대화합을 이루는 축전을 준비했다”며 “광주를 방문한 모든 분들이 남도의 향기와 스포츠의 감동을 한껏 즐기고 보람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발터 트로거(독일) 위원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 5명과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등이 체전 사상 처음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심혈을 기울인 개회식은 ‘빛의 교향곡 #1187’을 주제로 거대한 스타디움을 화려한 빛의 향연으로

채웠다. 8도 대학연합 응원단, 인라인 동호회가 함께한 응원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띄운 장내는 박 시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광주의 열정’을 보여주는 식전행사의 막을 올렸다.

식후행사에서는 2천여명의 학생들이 ‘빛의 터 광주’, ‘광주의 노래-어미의 사랑’, ‘다정다감’, ‘불·빛을 향하여’ 등 4개의 악장에 걸쳐 빛고을의 교향시를 표현했다.

한편 광주·전남은 체전 첫날인 이날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광주는 금호고등학교가 광주광역시교육원체육관에서 열린 남고 축구에서 대전 유성생명과학교를 1-0으로 꺾고 2회전에 올랐으며 테니스 남고·여고 게임은 우천으로 순연됐다.

충북 탄금호 경기장에서 열린 조정 남고 예선에서는 김인원(광주체고 2), 김휘관(광주체고 2)이 예선 3위를 기록했으며 김휘관은 싱글스컬에서 예선 2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기대했던 손수민(안도수고 3)이 역대 남고부 56kg에서 자신의 기록에 못미처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홍현지(전남미용고 1)는 나주벌포드름경기장에서 열린 사이클 여고 500m독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여자일반 유진아(나주시청)도 500m독주에서 역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초당대는 축구 남고대학부 예선에서 관동대를 승부차기 끝에 5-4로 이겼으며 백제고는 핸드볼 여고 예선에서 대전동방고를 33-19로 제압하고 2회전에 올랐다.

이날 여고 유망주 노국기(부산체고 3·부산)가 역대 남고부 56kg급 인상에서 대회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고, 용상과 합계에서도 1위에 올라 대회 첫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작년 경북체전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었던 사이클 김일경(대구체고 3·대구)은 트랙 여고부 500m 독주에서 우승했지만 날씨 탓에 경기 시간이 뒤로 밀려 2년 연속 첫 금메달 사냥의 기회를 놓쳤다.

/최혜희기자 lion@kwangju.co.kr



8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여고부 핸드볼 백제고·동방고와의 경기에서 전남대표 무안 백제고 김선화가 동방고 수비수들 사이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빅스타들 “화끈한 경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이 경기 꼭! 보세요

■ 수영 박태환



8일 오후 광주시 지산동 무등파크호텔에 도착한 박태환(가운데)이 아버지 박인호, 어머니 유성미씨와 호텔 정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위직필기자 jwji@kwangju.co.kr

“처음 온 광주 공기 좋네요”

‘마린보이’ 박태환(18·서울)의 광주 입성은 TV에서 봤던 수영장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태환은 8일 오후 이어폰을 끼 채 뒀다가 집중하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광주시 동구 지산동 무등파크호텔에 도착했다. 부모와 함께 개인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4시간 가량 이용한 피로감 탓인지 그의 하얀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차에서 내린 박태환은 이번 체전에서 “다섯 종목에 모두 출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환이 출전하게 될 종목은 남고부 자유형 100m, 200m와 계영 400m, 800m, 혼계영 800m 등.

계영에서 다른 주자들이 자기 페이스만 유지해준다면 5관왕도 어렵지 않다. 박태환은 이미 지난해 경북체전에서 5관왕, 첫 출전 이던 2005년 4관왕 등을 달성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박태환에게는 이번 체전이 컨디션 조절의 의미도 있다. 박태환은 “올림픽 전 마지막 국내 대회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훈련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방문은 처음이라는 박태환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여서인지 공기가 좋다”며 “현재 몸은 최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태환은 10일 광주 영주수영장에서 남고부 계영 800m를 시작으로, 11일 자유형 200m, 12일 계영 400m, 13일 자유형 100m, 14일 혼계영 400m에 출전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유도 이원희

“올림픽 2연패 도전의 시작”

“광주체전은 수술 후 6개월 만의 복귀전이자 올림픽 2연패라는 도전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유도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27·KRA)가 8일 오후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대표로 참가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원희는 지난 4월 독일에서 왼쪽 발목 수술을 받은 후 처음 팬들과 만나게 된다.

“수술 후 꾸준히 재활을 해왔지만 컨디션이 완전히 아닙니다. 주변에서 체전 참가를 만류하기도 했지만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컨디션 점검을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원희는 이번 체전에 주 체급인 73kg보다 한 단계 높은 81kg에 출전, 체중감량 등 큰 부담없이 경기에 임한다는 생각이다.

“갈끔히 정돈된 광주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체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소 경기가 실망스럽더라도 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기장에 섰다는 것에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

국내 최초 유도 그랜드 슬램·12경기 연속 한관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원희는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이달 23일 올림픽 대표 1차 선발전에 나선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한관승부’를 기억하고 계신데, 앞으로라도 이의 한관승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올림픽 유도 2연패의 꿈을 안고 ‘최고’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일 광주시 오치동 선수단 숙소에 도착한 유도 광주대표 이원희가 올림픽 2연패를 다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역도 장미란

“음식 맛 좋아 너무 행복해요”

“세계기록도 다시 넘고, 베이징 금메달도 따내야죠.”

‘세계적 여자 역도 스타’ 장미란(24·고양시청)이 빛을 광주에 입성했다.

8일 오후 소속팀인 경기도 체육단에 합류한 장미란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단 숙소에서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향후 계획과 광주체전 참가소감 등을 밝혔다.

“광주의 음식 맛이 너무 좋아 행복하다”며 광주에 온 느낌으로 말문을 연 장미란은 “우선 광주체전에서 좋은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내는 게 첫번째 목표고, 내친김에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달 한국 역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를 3연패한 장미란은 세계기록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도 밝혔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도 내놓았다.

여자 최중량급(+75kg) 세계기록(인상 138kg·용상 181kg·합계 319kg) 보유자인 장미란은 “인상과 용상을 모두 잡아야 하지만 인상에 좀 더 집중해 330kg(합계)까지 들어올리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장미란은 비인기 종목인 역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장미란은 “역도 종목도 경기장에서 직접 보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라면서 “광주시민들의 열렬한 응원만 있다면 광주에서 세계기록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밝게 웃었다.

/최혜희기자 lion@kwangju.co.kr



장미란이 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단 숙소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원희 시원한 한 판 기대 살레시오고

체조 3인방 맞대결 큰 관심 호남대

9일 오전 광주 살레시오고 체육관에 가면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를 만날 수 있다.

광주대표 이원희는 이날 남자 일반부 개인전 81kg 이하급에 나선다.

1회전을 부진상으로 통과, 8강전으로 직행한 이원희는 이날 3경기만 승리하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

지난 2003년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우승, 2006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를 석권하며 유도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이원희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이원희의 낙승이 예상되는 만큼 TV중계로만 봐왔던 이원희의 독특한 기도 세리머니도 눈앞에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유도경기장엔 이원희 외에도 장성호, 황희태, 유광선 등 수많은 유도 스타들이 금빛 메치기에 도전한다.

지난해 도하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던 ‘유도 열정’ 장성호(경기)는 무제한급에서 금메달을 자신하고 있다.

장성호는 도하아시안게임 당시 남자 유도 100kg급 결승서 이시사토시(일본)를 종료 11초를 남기고 하리후리기 한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잘 생긴 외모로 여성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장성호에 이은 또 다른 유도 스타는 황희태(경기·100kg급).

신안 출신으로 도하 아시안게임 90kg급에서 금메달을 캐낸 황희태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도 친근한 존재다. 전남대표로 나서는 금메달 유망주 유광선은 100kg 이하급에 출전한다.

이밖에 이날 오전 9시부터 호남대체육관에서 열리는 김대은(전남)과 양태영(전북), 유원철(경남) 등 한국 남자 체조 3인방의 맞대결도 볼거리다.

국가대표 동료인 이들은 밤 9시까지 잠시 동료애를 접고, 고향의 명예를 걸고 개인종량과 단체 종합에서 화려한 금빛 몸짓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영주수영장에서 열리는 수영 자유형 1천500m에선 ‘원조 물개’ 조오련의 아들 조성모(전남)가 금빛 영역에 도전한다.

한편 자세한 대회 일정과 결과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의 ‘전국체육대회 정보제공시스템(national.sports.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